

대한치과의사협회 송정동 신회관 移轉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7일 송정동 새회관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집행부 몇대에 걸친 숙원사업이었던 회관이전은 23년 영등포 회관에서서의 업무를 마감하고 7일 대한통운을 통해 지상 3층 지하1층의 송정동 신회관으로 이사집을 옮겼으며, 며칠간의 정리기간을 거쳐 대부분의 일상적인 업무를 정상화하는 등 이전에 따른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현재 송정동회관은 3층의 강당과 대·중회의실의 보수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나 그외의 제반시설은 모든 작업을 마친 상태여서 업무를 보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회관이전 후 처음으로 송정동 회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입주식을 가질 계획이다.

또한 2층에 대한치과교정학회, 대한치주과학회,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치과컴퓨터 동호인회, 성동구회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다.

이밖에 3층 시설은 지부장 회의를 열수 있는 회의실과 이사회 개최가 가능한 중회의실, 총회개최도 가능한 강당이 막바지 작업을 서두르고있다.

성동구 송정동 81-7에 위치한 송정동 신회관은 성수전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남향에 대지 4백 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평은 각층마다 2백 평씩 총 8백 평이고 지



송정동 신회관 전경

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을 합쳐 약 5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하며, 3개월간에 걸쳐 개·보수 작업을 한 신회관은 화강암으로 장식 품위를 높였으며, 중앙냉난방 등 최신 시설을 갖췄다.

신회관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주소 : 서울 성동구 송정동 81-7(우 133-160)
- 전화 : 치협사무처 498 - 6320~6
- FAX : 치협사무처 468 - 4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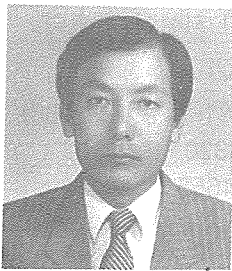
제 3 회 지부장회의

지난 26일 오후 4시 서울역 프라자 그릴에서 제3회 지부장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지부장 회의에서는 엔고의 강세로 최근 기자재 공급가가 일방적으로 인상되는 등의 횡포가 심하다며 전국치과의사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추진중인 수입판매 공동기구설립과 관련 치협의 자재위원회와 전국 신협연합회가 모여 치과기자재 공급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최근 3년간 실태조사가 없던 전국치과의사 수련교육기관에 대한 현황조사를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되 현재 진행 가능한 일부분만이라도 착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토의된 업무보고에서 치협이 추천한 모회사 칫솔과 관련 칫솔에 협회마크가 들어갔다면 차후 추천제품에는 협회추천 표시방법을 명문화 시키는 것이 치과기자재 전시를 축소할 사실과 관련 물량업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치과보철학회 정총 및 학술대회 성료



회장 김광남

지난 3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김광남)는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400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였다.

이날 오후 6시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김광남 회장은 「지난해 1천1백여명이던 회원이 올해 2천3백41명으로 급증한 것은 치과 임상에서의 근관과목인 치과보철학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 기술 습득이 없이는 개원가에서 낙오할 것이라는 절실한 생각 때문인 것 같다」 며 앞으로 이들 회원들에게 새로운 학술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는데 주력하기로 밝혔다.

이에 따라 보철학회는 춘·추계 학술대회를 각각 이틀씩 개최하기로 하고 기존의 4회의 학술집담회 이외에도 외국석학의 특강을 현 4회 개최하고, 임상과 환자위주의 개원의 교육은 연 4회 개최하고, 임상과 환자위주의 개원의 교

육은 연 3회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최소한 2회의 학술강연회를 지방에서 열어 지방분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회에서 이 사수를 늘리고 전문의 학술·편집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오전의 42편의 논문발표에 이어 오후에 「치과 보철에서의 심미」를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렸다.

치주과학회 학술대회 성료



회장 김종관

지난 10일 대한치주과학회(회장 김종관)는 제 34회 종합학술대회가 서울치대에서 2백 5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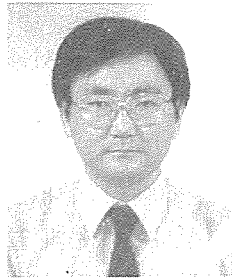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서울치대 정종평 교수의 “생체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한 치주질환 치료제 개발 현황” 및 미 토마린다치대 울프 미워케조 교수의 특강이 있었으며, “임프란트 시술 시 고려사항”이란 주제 아래 4연제의 심포지움이 진행됐다.

또 일반연제로 32연제가 발표됐으며 임상사례와 포스터 전시, 기자재 전시 등이 펼쳐졌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일반연제 발표에 나선 정순규 씨(원광치대)와 김은경 씨(부산치대)에게 각 신인학술상이 수여됐다.

대한치과교정학회 제27회 추계학술대회

지난 11월 24, 25일 양일간 워커히호텔에서는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張英一)가 제 27회 추계학술대회를 5백 30여명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장영일 회장은 「23일 전야제때 평의원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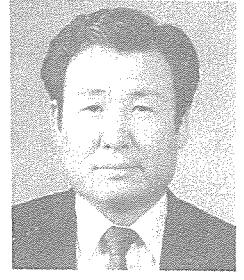


회장 장영일

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있었다」며 평의원제도를 도입한 것은 회원 숫자가 너무 늘어나 학회총회개최에 어려움이 많아 실질적인 회무, 예결산을 심사할 카운셀러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2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열린 총회에서 장영일 회장은 「최근 선출된 평의원 69명이 앞으로 1천 4백명 회원을 대신해 학회의결을 결정해 줄 것」이라고 밝힌 후 학회의 업무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총회는 평의원 60명에 대한 소개와 2학기 박사학위자 7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 및 김일봉 齒協대상자에 대한 꽃다발 증정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총회보고서에 따르면 12월 중에 있을 예정인 회비미납자에 대한 회원 재정비와 내년부터 춘계 학술대회를 없앨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교정치료시 발생하는 위험요소 및 대책」 심포지엄을 비롯 컴퓨터에 대한 기획강연, 보이드교수의 특강, 24편의 학술연구 논문 발표, 포스터 및 테이블클리닉등이 펼쳐졌다.

대한구강보건학회 종합학술대회

지난 11월 26,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전북 전주시 코아호텔에서 대한구강보건학회(회장·金啓鐘)의 종합학술대회가 70여 회원과 치과위생사 1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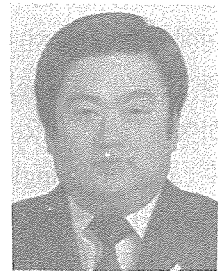
회장 김계준

이날 종합학술대회에서는 김종배 서울 치대 교수의 「3대 구강보건 목표 달성 전략」과 와다나베 日本 오가야마 대학 교수의 「치아 수명 연장」 특강을 비롯 23연제의 일반연제 발표가 진행됐다. 학술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는 김계준 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주환 한국구강 보건 협회장, 신금백 전북치대학장, 김숙향 대한치과 위생사 협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약기능교합학회 정총개최

-임용준 회장 연임

지난 11월 26일 대한약기능교합학회(회장 임용준)는 워커히호텔에서 제13회 정기총회 및 제1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회장 임용준

임원개선이 이뤄진 이

날 총회는 현 임용준 회장을 연임시키는 한편, 이월금 2백 24만여원, 연회비 1백만원, 연수회비 1천만원 등으로 편성된 95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월례학술집담회 3회 개최 종합학술대회 개최 해외연자초정강연 등 금년도 사업계획안을 확정짓고 집행부와 전회원이 노력하여 회원증가에 힘을 쏟기로 하였다.

이어 열린 학술대회는 단국치대 조인호 교수의 「임프란트의 교합」, 서울치대 정성창 교수의 「안면동통」, 경희치대 최대균 교수의 「총의치 환자의 악관절증」, 연세의대 전세일 교수의 「안면 동통환자의 재활치료」 등 특강 4연제가 발표되어 참석자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대한치과이식학회 학술대회

지난달 22일 대한치과이식(임프란트)학회(회장: 최광철)는 서울치대 병원에서 백여명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는 「C.T 임프란트 시술시 활용에 관하여」란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이날 강연에서는 서울치대 구강악안면방사선과 박태원 교수의 「치과진료에서 C.Tdml 활용」에 관하여 특강이 있었으며, 또 한양의대치과 이영수 교수의 「Single Tooth replacement」, dhk rlaghdrl qkrtkdml 「각종 임프란트의 최근 동향」이란 강연이 이어졌으며, 박일해 박사의 국제 임프란트 심포지엄 참가보고도 있었다.

서울치대병원 교정과

3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지난 17일 서울대병원 교정과는 창설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서울대 치과병원 강당에서 개최했다.

60여명의 내빈과 교정과 관련 치과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남동석 교정과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정학 진료로서 발전을 거듭해 온 교정과는 지금까지 1백30여명의 전교의를 배출했다」며 21세기에 서울대가 세계 5대 대학에 들어갈수 있도록 교정과도 힘을 합하겠다고 밝혔으며, 한만청 서울대병원장 축사에 이어 양원식 치대병원장의 축사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전공의 스태프들이 한마음으로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영일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의 축사와 도어티 박사의 축사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동문들에게 30주년 기념패 증정식이 있었다.

이어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도어티 USC 명예교수의 특강을 비롯 차경석(단국대)교수 등 강연이 있었다.

전문과목 10개로 확대 방침

현재 실행되고 있는 5개 치과 전문과목(구강외과, 교정과, 보철과, 소아치과, 치주위병과) 외에 보존과, 구강내과, 치과방사선과, 예방치과, 구강병리과 등 5개 과목이 전문과목에 추가

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 보사부 趙炳倫 의정국장은 치협의 건의를 받아들여 위 5개 진료과목을 전문과목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이미 보사부 장관의 결재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보존과, 구강내과, 치과방사선과, 예방치과, 구강병리과 등 5개 과목은 이미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진료과목 표시) 규정에 따라 5개 전문과목과 함께 진료과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전국 치과대학 부속병원에서는 오래 전부터 전공의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치과의사학회 학술집담회

대한치과의사학회(회장 박승오)는 11월 29일 오후 7시에 프레스센터에서 학술집담회를 열고 치과의사학 교육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흥수 교수(원광치대)는 현 치과교육 개선을 위한 “치과의사학 교육과 연구방향에 관한 소고”를 통해 현재 치과교육 과정 중 치과의사학의 소홀한 교육과 학생들의 그릇된 인식에 대해 지적하면서, 시급한 전공자 양성과 교육목표의 고차원적 설정 및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교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체 보건의서 치과의사학의 독립성과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필요하며 사례연구의 강화, 치아나 구강과 관련된 문화사적, 민속사적 연구활동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날 집담회에서는 서울시 치과의사회의 역사와 기원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으나 기원의 시점을 현실적 측면, 상징적 측면 등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여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서울시 여자치과의사회

학술대회 및 송년의 밤

지난달 26일 서울시여자치과의사회(회장 정현수)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제 3회 학술대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황산성 변호사의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강연이 있었으며, 현 공석중인 감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 만장일치로 김은숙 회원을 만장일치로 선출 하였으며, 학술대회 후 만찬 및 여흥시간 경품권 추첨도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찬숙, 김유봉, 전 대한여자치과의사회장 및 박인권 서울시치과의사회 국제이사 참석하였다.

바로잡습니다.

대치협회지 제 32권 11호 통권 306호에 게재된 원고증 특집 I (777페이지와 778페이지)의 내용이 바뀌었으므로 바로잡고자 합니다.